

### (9) 용강서원(龍岡書院)

1821년에 해룡면 중흥리에 처음 건립되었는데 1868년에 훼손되었다가 1971년 복설하면서 현재의 금곡동 256번지로 이건하였다. 양팽손(梁彭孫)과 양신용(梁信容)을 봉안하고 있는데 건립 당시의 사정은 잘 알 수 없다.

양팽손(1488~1545)의 자는 대춘(大春), 호는 학포(學圃)이며, 본관은 제주이다. 송흠에게서 수학하였고 1510년(중종 5)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. 1516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조광조 등과 더불어 공부하였다. 1519년에 홍문관교리가 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관직을 삭탈당하여 고향인 능주로 내려왔다. 이때 조광조가 능주로 유배되어오자 조석으로 대면하면서 교유를 하였으나 유배 1개월 만에 조광조가 사사되자 양팽손이 홀로 그 죽음을 지키고 친히 염습을 하여 장사 지냈다고 한다. 1537년에 복직이 허락되어 이후 용담현감 등을 지냈다. 인조 때 관서로 추증되었고 조광조를 배향한 능주의 죽수서원에 배향되었으며 혜강(惠康)의 시호를 받았다.

양신용은 양팽손의 증손으로 자는 경중(景仲), 호는 장춘(長春)이다.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쳤다.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자신이 노쇠하여 참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아들을 의병으로 보내고 자신은 해룡면 앵무산에 망성암(望聖庵)이라는 암자를 짓고 국권회복을 기원하였다.

